

2023년 중에도 금융과 IT 간 연계를 통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지속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의 대규모 예금인출 등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도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감시·혁신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먼저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증권과 외환결제를 중심으로 결제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QR코드 방식의 ATM 현금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편리하게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도 적극 수행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공동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나가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방식 다변화,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논의 참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의 지급결제 혁신 관련 논의 및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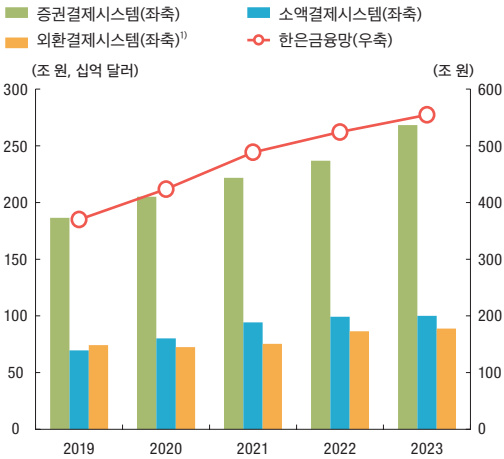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① 2023년 중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증권과 외환결제를 중심으로 증가했다(3~11p).

2023년 중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기관간RP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해 일평균 268.3조 원을 기록했으며,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

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88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다만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일평균 100.1조 원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공공망을 통한 자금이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0.8% 증가에 머물렀다. 한편 증권·외환·소액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가 최종 완결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결제금액은 일평균 554.6조 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주요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



주: 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기준, 십억 달러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2)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3~11p).

2023년 중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소액 및 증권결제, 국제적으로 연계된 외환동시결제 등에 대한 최종 결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¹⁾(일평균)은 20.9%로 전년(23.0%)대비 하락했으며 대기비율²⁾(일평균)은 4.9%로 전년(4.1%)대비 소폭 상승³⁾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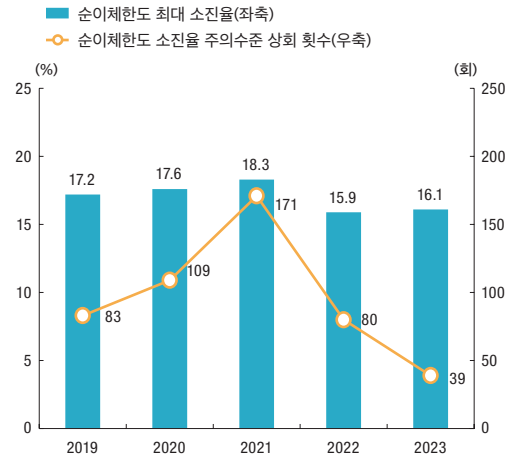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및 대기비율 추이(금액 기준)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 ¹⁾ | 21.3 | 23.5 | 20.3 | 23.0 | 20.9 |
| 대기비율 ²⁾ | 4.1 | 3.3 | 3.7 | 4.1 | 4.9 |

주: 1) 참가기관 중 은행의 일별 일종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2)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 되는 거래 제외)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⁴⁾(일평균)은 2023년 중 16.1%로 전년(15.9%)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9회로 전년(80회)보다 크게 감소했다.⁵⁾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¹⁾(일평균) 및 주의수준(70%) 상회 횟수 추이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1) 일종당좌대출 소진율은 일종당좌대출 한도 대비 사용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종당좌대출 한도가 1,000억 원이고 사용금액이 300억 원인 경우 소진율은 30%이다.
- 2) 대기비율은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중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 부족으로 자금이체 신청이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참가기관 A의 총 결제금액이 1,000억 원이고 이중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이 50억 원인 경우 대기비율은 5%이다.
- 3) 대기금액의 대부분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유동성을 상시 충분히 보유하지 않는 가운데 기관간RP 등으로 결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금액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 4) 순이체한도는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용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고객자금이체 순한도로서, 개별 참가기관이 시스템 전체에 초래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의 크기를 의미한다. 참가기관이 신규 고객자금이체를 신청하면 동 한도가 소진되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고객자금이체를 수취하면 동 한도가 복구된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사전 납입하도록 하는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5) 2023년 중 국내 기업공개(IPO) 공모금액(3.3조 원)이 전년(15.6조 원)대비 감소함에 따라 관련 청약 및 환불 자금이동이 줄어들고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설정 규모가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시점 불일치로 인한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2023년 중 77.9%로 전년(77.0%)대비 상승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주식 기관투자자 거래의 결제는 모두 기준시한 이전에 완료되었다. 장외 기관간RP 및 채권의 경우도 대금 지급과 증권 인도를 동시에 처리해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이 전년에 이어 확대되었다.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③ 한국은행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19~21p).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⁶⁾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소액결제시스템의 자금이체한도 관련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3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인상 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0월 국내 단기금융시장 불안

에 대응하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조치 유예,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의 한시적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비율 인상 일정을 3개월씩 순연했다. 이후 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으로 2023년 1월에 동 조치의 종료기한을 연장하면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시점을 추가 순연했다. 이런 조치로 2023년 8월에 들어서 동 비율이 70%에서 80%로 인상되었다. 동 비율은 2024년 8월 90%, 2025년 8월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의 한시적 확대조치를 상시화⁷⁾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¹⁾ 인상 일정

| | | (%) | | | | | |
|--------------------|----|--------|--------|--------|--------|--------|--------|
| | 기준 | 2023.2 | 2023.8 | 2024.2 | 2024.8 | 2025.2 | 2025.8 |
| 변경 전 ²⁾ | 70 | 80 | 80 | 90 | 90 | 100 | 100 |
| 변경 후 ³⁾ | | 70 | 80 | 80 | 90 | 90 | 100 |

주: 1) (Σ담보인정가액 / 순이체한도)×100
 2) 2022년 10월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전 기준
 3) 2023년 1월 인상시기 변경 이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 확대

| 적격담보증권 | 변경내용 |
|---|-------|
| ·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주택금융공사 MBS,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 — |
| ·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 | 상시화 |
| ·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회사채 | 신규 추가 |

자료: 한국은행

6) 과거 지급결제부문의 국제기준인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에서는 신용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순이체한도 설정 등을 통한 리스크 크기 제한을 권고할 뿐 목표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는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권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7)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상시 적격담보증권으로 변경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및 우량회사채를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에 신규로 추가했다.

한편 2023년 3월 대규모 예금 인출에 따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만큼 고객의 대규모 자금이체 또는 예금인출 발생에 대비하여 은행이 야간 및 휴일에도 한국은행에 담보증권 등을 납입하여 자금이체 한도를 탄력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PF 대출 부실 위험이 부각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일부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한도가 예금인출 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고객 자금이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이체 한도 증액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한도 소진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금이체 한도를 적시 증액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픈뱅킹공동망은 핀테크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조회 및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한 자금이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픈뱅킹공동망 참가제도를 개선했다. 이체업무와 조회업무의 이용자 자격 기준을 체계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에 대한 정기 심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기적 평가를 위해 현재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④ 한국은행은 모바일현금카드 앱 등을 통한 ATM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현금 이용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22~24p).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과 함께 모바일현금카드 기반 공동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실물 현금카드 없이도 17개 은행 ATM에서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공동 앱이나 일부 개별은행 모바일뱅킹 앱만으로 편리하게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금융맵 서비스의 제공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모바일 앱을 통한 ATM 및 금융기관 지점 위치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

향후 공동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 자동화기기 및 서민금융기관 운영 ATM에도 확대 적용하고, 개별은행 모바일뱅킹 앱이나 민간 페이 앱과의 연계 확충 등을 통해 동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ATM 이용 화면(예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편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현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가운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⁸⁾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소매·유통업체 등과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와 동영상 제작·게시하고 청소년 대상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국내외 협력 강화】

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을 적극 수행했다(31~35p).

2023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지침」 등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 및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⁹⁾에 대한 정기평가를 완료했다.

평가 결과, 한은금융망은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인적재해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재해 복구센터 운영 체계 등 일부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항은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도 평가 결과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며, 운영리스크 관리 및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자격 기준 등 일부 업무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3개 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해 일중유동성, 결제리스크 관리 등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자금이체 수행절차 및 장애 사고 발생 시 대외기관 보고체계 개선, 결제유동성 관리체계 보완 등을 권고했다.

2023년 중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실시 현황

| 평가대상 | 개선권고 부문 |
|--|-----------------------------------|
|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 · 인적재해 대비 모의훈련 · 재해복구센터 운영체계 등 |
|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공동망 | · 운영리스크 관리 · 오픈뱅킹공동망 참가요건 등 |

자료: 한국은행

한편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및 지급서비스 확장에 대해서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심화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IT 플랫폼과 금융의 결합이 지급결제제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 실행 체계 등에 관해 검토할 계획이다.

8)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구성되었으며, 참가기관은 공금자(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중개자(금융기관 및 현금수송회사 등)·사용자(소매·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유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총 23개 기관이다.
9)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종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3>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한국은행은 2004년부터 19년간의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성과 및 운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종전 2년이었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정기평가 주기를 2024년 4월 1일부터 3년으로 확대하되, 수시평가¹⁰⁾를 통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중 중요성 있는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⑥ 한국은행은 국제사회의 지급결제 관련 논의 및 연구,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규제체계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36~38p).

국제결제은행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제사회 논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간 지급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관업계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2023년 6월 국내은행, 소액해외송금업체, 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TF」를 신설하여 국가 간 지급 개선 로드맵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국내외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하면서도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7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 말까지 동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출범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등에 관한 의견

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관 및 거래가 용이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은행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가 법정화폐 기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⑦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용 CBDC 관련 기술 연구 고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대내외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49~54p).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BDC 관련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CBDC에 대한 기술 및 법·제도적 이슈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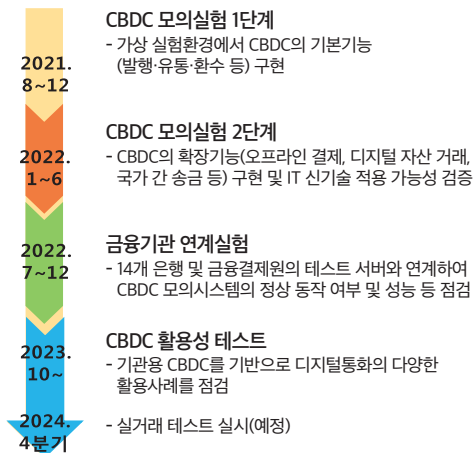
먼저 한국은행은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

10)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취약점 파악 및 개선권고의 적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기준 및 중요한 제도 변경, IT 시스템 관련 운영리스크 등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정기평가 주기 도래 전이라도 수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하는 CBDC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민간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실거래 테스트와 함께 가상환경에서 미래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축 방안을 미리 점검해보는 기술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는 최대 1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에 이용하게 된다. 기술실험은 가상환경에서 민간 디지털통화가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결제리스크를 감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테스트가 현행법 및 금융규제의 틀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법적 효력이나 이용자 재산권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CBDC 관련 연구 현황



자료: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은 범용 CBDC 관련 기술 연구를 고도화하고 있다. 2023년 5월 삼성전자와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통신망 장애 등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용 CBDC가 실물화폐와 더불어 대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CBDC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CBDC와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법학 관련 학회들과 「사법학자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CBDC의 사법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금융에 관해 논의하는 「Money & Banking 미래 포럼」의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CBDC에 관한 법·제도·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그 밖에 경제주체들의 CBDC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CBDC 웹페이지를 신규 개설하고 CBDC 관련 카드 뉴스 6편과 해설 동영상 2편을 게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그간의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했다. 2023년 11월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3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제통화기금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CBDC 연구 개발 현황,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CBDC 및 토큰화 등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Project Mandala 및 Project Agorá)를 진행하고 있다.

㉘ 한국은행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신속자금 이체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5~57p).

한국은행은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며,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고객 간 자금이체를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한 데 이어 2004년 CD공동망 운영시간을 연중무휴로 확대, 2016년 오픈뱅킹공동망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는 국민들의 자금이체 편의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자금이체에 대한 한은금융망을 통한 최종 차액결제가 자금이체일의 익영업일에 처리됨에 따라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수취인에게 먼저 지급한 자금을 익영업일 차액결제 시점까지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이 발생하며, 최근 진전된 IT 기술 역량과 신속 자금이체시스템 도입 방식 관련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이후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구축 중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이러한 이연차액결제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은행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도입이 한국은행은 물론 참가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하는 데다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관리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

는 만큼 동 시스템의 세부 구축방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향후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가능성에 대비한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시스템의 지급지시에 사용되는 전문에 현재 한은금융망에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금융전문표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㉙ 한국은행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58~59p).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국제금융전문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2022년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우선 협력과제로 선정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과제 중 하나이자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등 여타 개선과제들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2년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에 착수했으며, 2023년 일반자금이체, 수취인지정자금이체 등 핵심 자금이체의 전문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의 국가 간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문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시스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으로 국내의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및 자금결제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송금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